

# 2002년 인력난 가장 심했다

## 관리직도 부족 ... 공정자동화로 극복해야

한국은행은 올 4월7일부터 5월6일까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채용업체 1만3800개를 표본으로 산업 및 직종별 인력부족비율을 발표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99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인력부족 비율은 2003년에 다소 낮아진 가운데, 전체 산업의 인력부족 비율은 2.18%였으며, 이중 제조업은 2.1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6.44%,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 직종은 3.63%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인쇄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편집자 주>

### 99년 이후 인력난 심화 2003년 최고점 기록

99년 구제금융 한파의 영향으로 인해 인력수급 면에서 1% 수준을 기록했던 인쇄업종의 인력부족 비율은 점차 위태로운 수준으로 치달고 있다.

관리와 사무직의 경우 단순수치로 보자면 1%로 안정적인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리직에서조차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인쇄업 인력난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생산직종과 단순노무직종이 가장 안정적인 인력확보율을 보여줬던 해는 99년으로 생산직종 1.79%, 단순노무직종 0.83%를 기록했다.

2001년까지 1%로 안정적인 기초를 보이던 생산, 단순노무 직종의 인력난이 가시화된 것은 2002년으로 생산직종의 인력

부족 비율이 2001년 1.01%에서 2002년 갑작스레 7.00%로 치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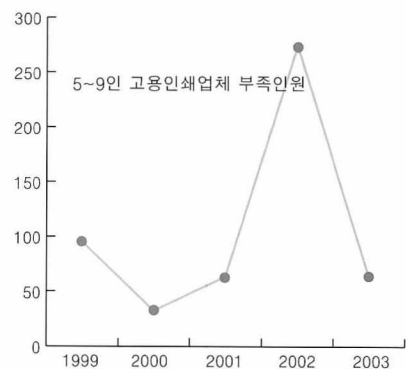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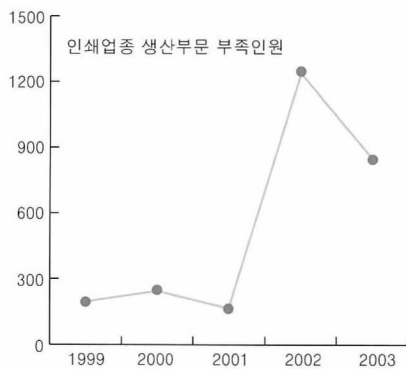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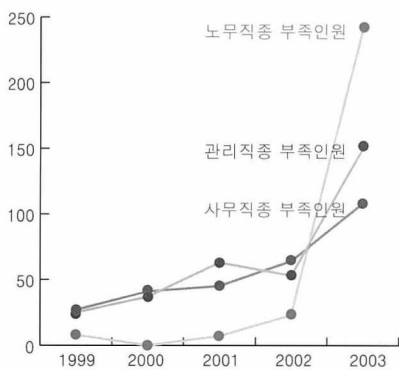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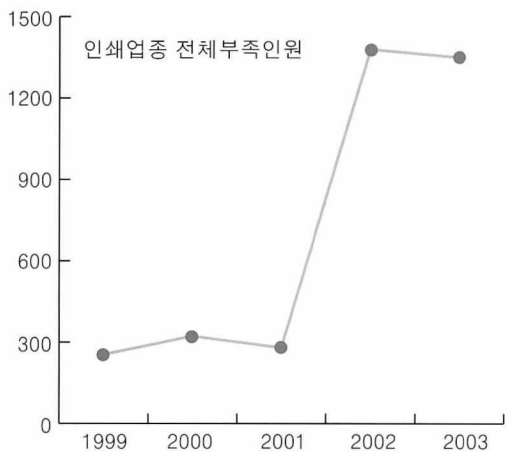
인쇄업 생산직종의 7.00% 인력부족 비율은 같은 해 전체 제조업 생산직종의 4.46%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61개 소 분류 중소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직종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인쇄업 보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는 편조업(21.58%), 코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20.64%)이 비교적 높았으며, 나머지 4개 업종은 인쇄업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2003년에는 생산직종의 인력부족 비율이 4.61%로 다소 수그러졌으나 2002년 1.63%의 인력부족 비율을 기록했던 단순노무직종이 12.73%로 뛰어 놀랐다.

12.73%의 단순 노무직 인력부족 비율은 제조업을 소 분류한 61개 업종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인쇄업이 얼마나 심각

<표 1> 인쇄업 전체 직종 인력부족 비율

시기	총원	부족인원	부족율	관리	부족인원	부족율	사무	부족인원	부족율	생산	부족인원	부족율	노무	부족인원	부족율
2003	37,195	1,348	3.63	9,044	150	1.66	7,589	108	1.43	18,389	849	4.61	1,893	241	12.73
2002	35,369	1,378	3.90	8,624	53	0.61	7,291	64	0.87	17,697	1,238	7.00	1,437	23	1.63
2001	33,687	279	0.83	9,007	63	0.70	6,493	45	0.69	16,190	164	1.01	1,878	7	0.39
2000	22,445	322	1.43	5,178	37	0.72	3,981	41	1.04	12,258	243	1.98	935	0	0.00
1999	20,943	254	1.21	4,815	25	0.51	4,211	27	0.63	10,845	194	1.79	1,011	8	0.83



〈표 2〉 5~9인 고용 인쇄업체의 인력부족 비율

시기	총원	부족인원	부족율	관리	부족인원	부족율	사무	부족인원	부족율	생산	부족인원	부족율	노무	부족인원	부족율
2003	7,051	64	0.90	2,712	0	0.00	1,787	0	0.00	2,520	64	2.53	32	0	0.00
2002	7,926	274	3.46	2,591	30	1.18	2,073	0	0.00	3,231	244	7.55	30	0	0.00
2001	8,923	63	0.70	3,080	31	1.02	2,223	0	0.00	3,621	31	0.87	0	0	0.00
2000	4,504	32	0.71	1,433	0	0.00	864	14	1.58	2,120	18	0.85	72	0	0.00
1999	4,153	95	2.29	987	0	0.00	1,339	16	1.18	1,577	79	5.02	250	0	0.00

한 인력난에 처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가 2003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각급 교육기관을 수료한 졸업생들의 이직률이 높지 않을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직종과 단순노무직종의 인력부족 비율은 향후 좀더 높아질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사가 5인 이상 인쇄업체를 기준으로 실시되었다는 점과 2001년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하 인쇄업체에 평균 2.19명만 종사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인쇄업체의 인력난은 이번 조사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참조>

### 5인 이상 9인 이하 인력부족 비율 현황

인쇄업종의 규모별 인력부족 비율을 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 9인 이하 종사업체의 인력난은 관리직종의 경우 2002년(1.18%)과 2001년(1.02%)에 약간명의 인원 부족을 겪었으며, 사무직종은 2000년(1.58%), 1999년(1.18%)에 미미

한 인력난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직종의 인력난은 관리, 사무직종 보다 심각해서 1999년 5.02%의 인력난을 겪은 후 다소 완화되던 생산직종 인력부족 비율은 2002년 7.55%를 기록했다.

단순노무 직종의 인력난은 없었다. <표2 참조>

### 10인 이상 29인 이하 인력부족 비율 현황

10인 이상 ~ 29인 이하 인쇄업체의 인력부족 비율을 보면 인쇄업체는 2003년 4월1일 현재 단순노무직에서 20.59%라는 심각한 인력부족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같은 단위 세 분류 제조업 중 인쇄업종 보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50.00%),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제조업(50.00%), 낙농품제조업(22.22%)뿐이었다.

이 분류에서는 관리직종도 3.28%의 인력 부족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61개 세 분류 제조업종 중 10번째 순위이다.

<표 3> 10~29인 고용 인쇄업체의 인력부족 비율

시기	총원	부족인원	부족율	관리	부족인원	부족율	사무	부족인원	부족율	생산	부족인원	부족율	노무	부족인원	부족율
2003	13,051	715	5.48	3,062	101	3.28	2,749	45	1.63	6,470	413	6.39	760	156	20.59
2002	13,608	485	3.56	3,570	22	0.62	2,589	44	1.70	6,986	408	5.84	463	11	2.38
2001	13,180	137	1.04	3,363	32	0.94	2,249	32	1.41	6,797	74	1.08	750	0	0.00
2000	6,612	116	1.75	1,427	26	1.79	1,395	14	0.99	3,406	76	2.24	381	0	0.00
1999	7,278	117	1.61	1,835	25	1.35	1,517	5	0.36	3,550	87	2.46	370	0	0.00

<표 4> 30인 이상 ~ 99인 고용 인쇄업체의 인력부족 비율

시기	총원	부족인원	부족율	관리	부족인원	부족율	사무	부족인원	부족율	생산	부족인원	부족율	노무	부족인원	부족율
2003	10,274	455	4.43	1,943	32	1.63	1,763	64	3.60	5,764	281	4.87	767	79	10.34
2002	7,076	124	1.76	1,430	0	0.00	1,455	12	0.85	3,594	99	2.77	568	12	2.19
2001	7,765	49	0.64	2,121	0	0.00	1,397	13	0.93	3,570	29	0.82	602	7	1.21
2000	6,425	66	1.03	1,561	6	0.39	1,068	5	0.50	3,498	55	1.56	262	0	0.00
1999	5,822	9	0.15	1,380	0	0.00	921	3	0.32	3,279	6	0.18	215	0	0.00

<표 5> 100인 이상 ~ 299인 고용 인쇄업체의 인력부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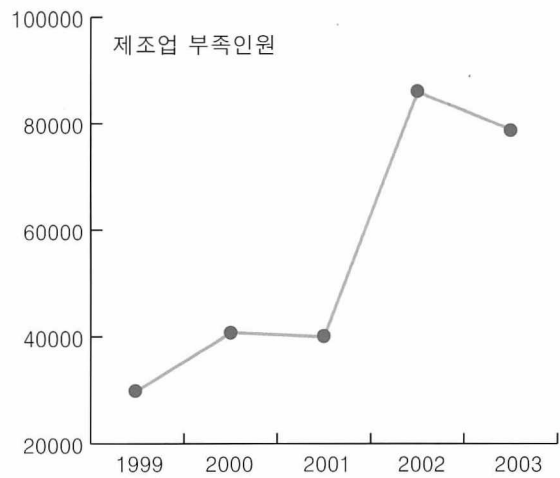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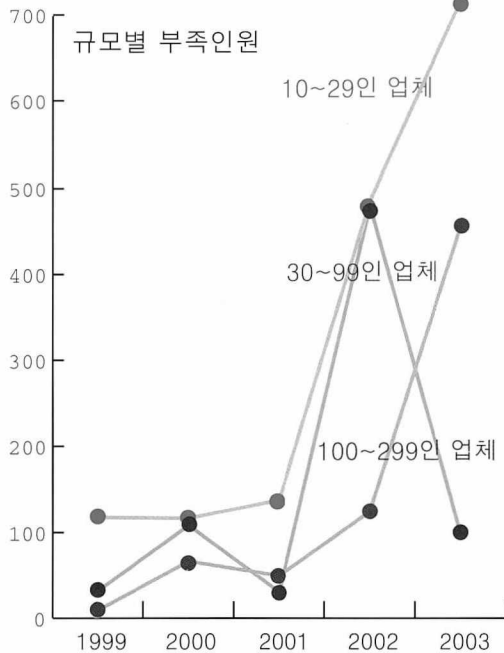
시기	총원	부족인원	부족율	관리	부족인원	부족율	사무	부족인원	부족율	생산	부족인원	부족율	노무	부족인원	부족율
2003	5,319	99	1.85	1,243	18	1.46	1,031	0	0.00	2,739	75	2.75	286	5	1.82
2002	5,015	479	9.55	949	0	0.00	897	7	0.79	2,834	472	16.65	316	0	0.00
2001	2,351	30	1.26	358	0	0.00	440	0	0.00	1,344	30	2.20	194	0	0.00
2000	3,900	108	2.77	656	6	0.88	551	8	1.52	2,489	94	3.78	170	0	0.00
1999	2,740	32	1.18	476	0	0.00	356	2	0.64	1,749	22	1.25	135	8	6.22

<표 6> 300인 이상 고용 인쇄업체의 인력부족 비율

시기	총원	부족인원	부족율	관리	부족인원	부족율	사무	부족인원	부족율	생산	부족인원	부족율	노무	부족인원	부족율
2003	1,500	16	1.04	84	0	0.00	260	0	0.00	895	16	1.73	48	0	0.00
2002	1,744	15	0.87	84	0	0.00	276	0	0.00	1,051	15	1.45	59	0	0.00
2001	1,468	0	0.00	85	0	0.00	185	0	0.00	859	0	0.00	332	0	0.00
2000	1,003	0	0.00	101	0	0.00	103	0	0.00	745	0	0.00	50	0	0.00
1999	950	0	0.00	136	0	0.00	78	0	0.00	690	0	0.00	41	0	0.00

〈표 7〉 제조업의 인력부족 비율

시기	총원	부족인원	부족율	관리	부족인원	부족율	사무	부족인원	부족율	생산	부족인원	부족율	노무	부족인원	부족율
2003	2,672,798	78,636	2.94	609,274	9,103	1.49	439,051	7,710	1.76	1,391,874	52,606	3.78	198,057	8,396	4.24
2002	2,500,120	85,817	3.43	567,578	9,473	1.67	408,794	9,393	2.30	1,305,964	58,275	4.46	189,062	8,416	4.45
2001	2,509,573	39,835	1.59	549,635	5,672	1.03	416,239	4,538	1.09	1,316,188	26,130	1.99	192,891	3,139	1.63
2000	2,378,779	40,662	1.71	500,484	4,330	0.87	388,936	3,087	0.79	1,289,033	29,954	2.32	164,053	2,979	1.82
1999	2,302,006	29,875	1.30	472,862	3,078	0.65	365,224	3,025	0.83	1,287,968	21,085	1.64	141,027	2,344	1.66



생산직종은 2003년에 6.39%의 비율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비율이 주목된다 할 수 있겠다. 〈표3 참조〉

### 30인 이상 99인 이하 고용 인채업체도 인력부족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30인 이상 ~ 99인 이하 고용 인채업체도 인력난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했다.

2003년 30인 이상 ~ 99인 이하 고용 인채업체의 단순노무직종 인력부족 비율은 10.34%로 전체 제조업 중 인채업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곳은 4개 업종 밖에 없었다. 생산직종도 4.87%로 전체 제조업 평균 3.8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종도 3.60%의 인력부족 비율로 전체 제조업 2.00%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할 만한 내용은 2002년 이전에는 인력난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1999년의 경우 관리(0.00%), 사무(0.32%), 생산(0.18%), 단순노무(0.00%) 등 모든 직종이 인력난에서 자유로운 편이었다. 〈표4 참조〉

### 100인 이상 299인 이하 고용 인채업체

100인 이상 ~ 299인 이하 고용 인채업체도 생산직종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2년의 경우 생산직 인력부족 비율이 16.65%를 기록했다는 점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16.65%의 인력부족 비율은 해당년도 전체 제조업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99년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로 2002년 인채업체의 인력난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5 참조〉

### 300인 이상 대기업서는 인력난 적어

300인 이상 대기업 단위에서는 특별한 인력난이 보이지 않았으며, 2003년과 2002년 생산직종에서 각각 1.73%와 1.45%의 인력부족 비율을 나타냈다. 〈표6 참조〉

### 전체 제조업 인력난 현황

한편 전체 제조업의 경우 1999년 이후 인력난이 점차 심해지면서 2002년에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종은 2002년에 생산직에서 4.46%, 단순노무직에서 4.45%의 인력난을 겪었으며, 사무직에서도 2.30%의 인력난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표7 참조〉

〈이용우 기자〉